



2022 EMERiCs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중남미 권역

내가 알았던 브라질과 내가 알고 있는 브라질 정성기

나는 2015년 브라질에 이민을 왔다. 브라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서 근무하던 직장 생활에 지쳐 이직을 알아보던 중 브라질 어느 대학교의 교수에 임용이 되었다. 이직을 하기 전까지 브라질은 내 삶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국가였다. 단, 언론에서 한번씩 보도되는 브라질이라는 국가에 대해 흘러 들었던 정보가 전부였다. 그 정보라는 것도 단편적인 것으로, 브라질은 축구를 잘하고 삼바가 유명하며,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였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고 빈민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어느 것 하나 나을 게 없는 국가라고만 생각했다. 그런 브라질에 나는 왔다. 단순히 교수라는 직업적 매력만 생각하고 왔다.

처음 브라질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브라질에 대한 생각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며칠을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후회 하다가도 학교에 있는 교수 연구실에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잊혀졌다. 직업적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근무할 때는 이것저것 눈치보고 신경 쓰느라 360도로 돌아가는 레이더가 하루하루 나를 숨 막히게 했지만, 여기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누구 하나 신경 쓸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가면 “여기 브라질은

아니야” 하다가도, 출근하면 “그래 잘 왔어” 하는 생각이 2년간 이어졌다.

그런 반복적인 생활이 위기를 맞았다. 기본 2년 짜리 취업비자에 추가 2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정해진 기한 내 추가 2년을 위한 행정적 처리를 못해서 비자가 만료가 된 것이다. 아직도 이해는 안되지만 어찌됐건 이는 학교 담당 행정 직원의 경험부재로 인한 미숙함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2년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나에게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취업비자가 만료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와 학교사이의 계약도 종료되었고 이는 더이상 나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브라질의 국가적 시스템은 뭐하나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나을 게 없고 소득 수준도 대한민국의 3분의1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 특히 학과 동료 교수들이 나를 금전적으로 도와준 것이다. 평소에도 브라질 사람들은 국가 시스템과는 다르게 친절하고 매너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소득도 많지 않으면서 학과 교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나를 도와준다고... 나름 크라우드 펀딩이라면서 편하게 쓰라고 돈을 준

것이다. 교수들은 모두 알고 있다. 한국이 브라질보다 훨씬 더 소득 수준이 높고 국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도와준 것일까...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동료 교수 누가 얼마를 입금했다고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는 일이 며칠간 지속되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내가 얼마나 부족해 보이면 이렇게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 순수한 마음에 도와준다는 것이 나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감동이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단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이 나에게 감동을 준 것이다.

이 사건은 내 삶에 큰 변곡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일 이후 내가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인구의 40% 정도가 유럽계 이민자이고, 백인과 원주민과의 혼혈이 40% 정도이며 나머지가 아시아, 아프리카 및 기타 국가 출신으로 이루어진 브라질이라는 국가. 평소에도 브라질 사람들은 친절하고, 운전 매너가 좋고, 노약자를 우대하며,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이와 덧붙여 한가지 깊은 깨달음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돈이 없다고 사람의 인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브라질을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이야기 하지만 나는 브라질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지하철에 중증 장애인이 얼굴 근육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침을 흘리고 있으니 자기의 손수건으로 장애인의 침을 닦아주며 그 볼에 키스를 해주는 아줌마, 배고파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식당에서 밥을 사주는 아저씨,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 중 일부를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택배 기사, 빵을 사서 나오다가 노숙하는 사람을 보고 빵을 나눠주는 청년,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브라질, 참 이상한 나라다.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빈민가를 중심으로 치안이 불안하며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의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 언뜻 보기에는 이율 배반적이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된다. 하지만 이런 바탕에는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품격이 자리잡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